삼전 주식 0.1주, 이제 사고판다... "배당소득세 비과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7065?sid=101

기재부 소수점 거래 두고 세법 해석 결론"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금융위 허용 1년 만인 이달 말 시행할 듯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삼성전자 주식을 0.1주만 사고팔 수 있는 주식 '소수점 거래'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걸림돌이던 ‘세금 부과 기준’을 놓고 당국이 고율의 세금인 배당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판단하면서다.기획재정부는 소수점 거래 투자자가 산 주식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세법 해석을 15일 내렸다. 소수점 거래는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떼어가는 배당소득세 과세로 결정될 경우 차질을 빚을 수 있었다. 앞으로 소수점 거래를 하면 0.2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허용한 소수점 거래는 1년 만에 빛을 볼 수 있게 됐다. 24개 증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련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달 말 바로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시행할 전망이다.소수점 거래는 주당 가격이 높은 황제주 등의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추진됐다. 예컨대 주식 투자금이 많지 않은 투자자는 이날 기준 주당 80만7,000원에 거래를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8만700원에 0.1주만 살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대주주가 양도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소수점 거래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 등은 주식 매도 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소수점 거래엔 소액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삼전·SK하이닉스 또 하락...실적 부진까지 '울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98402?sid=10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쇼크에 모처럼 웃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주저앉았다. 현실로 다가온 반도체 불황에 반도체주에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24% 하락한 5만6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3% 넘게 빠지기도 했다. SK하이닉스도 1.90% 내린 9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KRX 반도체지수 역시 2.28% 후퇴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는 4.50% 올랐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56억원, 1843억원의 순매수를 기록한 덕분이다. 이달 1일부터 내리막을 걷다 7거래일 만에 맞은 상승에 '6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SK하이닉스도 4.87% 상승,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8월 미국의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자 투자심리가 급속 냉각됐다. 엔비디아(-9.47%), AMD(-8.99%), 마이크론(-7.46%), 퀄컴(-6.07%) 등 주요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크게 빠졌다. 반도체 시장의 불황에 실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은 13조4961억원으로 전년동기(15조8175억원) 대비 14.7% 줄어들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4조1718억원에서 2조9865억원으로 28.4%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4·4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 경기 침체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여파다. 반도체 업종의 혹한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박성순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D램 공급 증가가 크게 제한될 것"이라면서도 "메모리 수요가 시장의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전 #6만전자 #하닉 #반도체주가

총 상속세 12조…이부진, 삼전 주식담보 1000억 대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52768?sid=101

상속세 납부용…삼성전자 주식담보 대출 받아삼성 일가 신고 총 상속세는 12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100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다.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달 19일 삼성전자 주식 325만3000주를 담보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자율 4.5%로 1000억원을 빌렸다.업계에서는 이번 대출을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확보 목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장은 올해 초 삼성전자 주식 117만7000주와 210만주를 토대로 현대차증권과 교보증권에서 각각 500억원, 700억원을 4%의 이자율로 대출받았다.지난해 10월에는 현대차증권에서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10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이밖에 지난 3월에는 삼성SDS의 주식 150만9430주를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이 회장은 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 약 26조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계열사 주식 지분 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한다.삼성 일가가 지난해 용산세무서에 신고한 상속세는 12조원이 넘는다. 삼성 일가는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했다.주식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홍라희 여사 3조10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조9000억원, 이 사장 2조6000억원,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소수점거래 장애물 넘었다…"이르면 이달부터 삼전 0.1주 거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02866?sid=101

[앵커]탐나는 주식인데 주머니 사정상 한 주 사기가 좀 부담스럽다, 하는 종목들이 있죠.앞으로는 이런 부담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이르면 이달 안으로 국내 주식도 0.1주씩 거래할 수 있게 되는데,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안지혜 기자,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있었잖아요. 해결된 겁니까?[기자]네, 그동안 세금 부과 기준이 쟁점이었는데요.기획재정부는 앞서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대해 "소수점 주식 거래로 생긴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어제(15일) 회신했습니다.만약 소수점 주식 양도 차익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면 주주들이 배당소득세 15.4%를 부담해야 했습니다.하지만 이번 해석에 따라 투자자는 0.23%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사고팔 수 있게 된 겁니다.앞서 금융위원회가 이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당초 이달부터 국내 24개 증권사가 선보일 예정이었고요.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를 두고 금융투자협회가 국세청에 세법 해석을 문의하면서 이달 내 도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앵커]그럼 언제부터 살 수 있는 겁니까?[기자]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매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예탁결제원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이 서비스와 관련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소수단위 거래는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취합해 예탁원에 온전한 주식인 1주를 신탁하면, 예탁원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물론 현재는 국내 증시가 약세장에 돌입하면서 주당 100만 원을 넘어서는 황제주는 없는 상황입니다.삼성바이오직스가 80만 원대, 태광산업도 78만 원대에 그치는데요.고가 주식 수가 늘어날수록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SBS Biz 안지혜입니다.

모처럼 웃었던 삼전·SK하닉·카카오 추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46973?sid=101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6% 급락하루만에 성장주 투자심리 빠르게 꺼져"실적 모멘텀 없이 반등 어려워"  
  
  
  
지난 6월 글로벌 주식시장을 초토화시켰던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쇼크가 재현되면서 전일 모처럼 오름세를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고꾸라졌다.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주에 대한 투심도 빠르게 꺼지고 있다.14알 오전 10시15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24% 하락한 5만6800원에 거래됐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 초반 5만61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2.64% 내렸다.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6% 넘게 급락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전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외인들의 폭풍 매수에 힘입어 4% 넘게 뛰어올랐지만,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했다.같은 시각 전일 오름세를 보였던 NAVER(-4.19%), 카카오(-3.71%), 카카오뱅크(-3.36%), 카카오게임즈(-3.67%), 크래프톤(-2.61%) 등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애초 증권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가솔린 가격이 낮아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성장주의 단기 반등세를 점쳤지만 이러한 예측은 맞아떨어지지 않았다.반도체와 성장주의 경우 기대감만으로 주가 오름세가 전개됐던 만큼 재반등 시점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선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반도체업종의 경우 내년 하반기나 되어서야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방시장의 수요 약세와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 레벨 상승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다운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업황 둔화 가능성이 반영됐지만, 사이클의 골이 완전히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카카오와 NAVER 등 인터넷서비스 업체, 게임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외환경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경우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다른 주식 대비 할인율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 게임주들의 실적, 신작, 신사업 모멘텀을 고려해봐도 대외환경 영향을 극복할 만큼 우수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삼전도, 네카오도 추락했다…한국 증시 '나스닥 쇼크' 직격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23553?sid=101

'뉴욕증시 쇼크'에 14일 국내 증시도 2%대 하락 출발했다. 이날 코스피는 2.41% 내린 2390.47에 개장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380대로 밀리며 추석 연휴 이후의 '반짝'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코스닥 지수도 2.62% 하락한 775.93에 장을 출발했다.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가 전 거래일(2449.54)보다 59.07포인트(2.41%) 내린 2390.47에 출발,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96.79)보다 20.86포인트(2.62%) 하락한 775.93,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73.6원)보다 19.4원 오른 1393.0원에 출발했다. 뉴스1 1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2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 미국 노동부가 뉴욕증시 개장을 1시간 앞두고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8.3%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면서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5.16%, 다우 지수는 3.94%, S&P500 지수는 4.32% 하락했다. 이는 코로나 19가 확산하면서 부정적인 경제전망이 쏟아졌던 2020년 6월 11일 이후 최대폭의 하락이다. 당시 나스닥은 5.27% , 다우존스 6.90%, S&P 500은 5.89%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면서 달러당 원화 가치는 13년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1390원대로 추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전일 대비 19.4원 내린 1393원에 출발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오전 10시 10분 현재 2.41% 밀린 5만6700원을, SK하이닉스도 2.74% 밀린 9만2200원을 기록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3%대의 하락을 보이기도 했다. 국내 대표 성장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같은 시간 네이버는 4.61% 하락한 22만7500원, 카카오는 3.86% 하락한 6만7400원이다. 네이버는 이날 22만6000원대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코스피 거래 상위 1위 종목에는 KODEX선물인버스2X가 이름을 올렸다. 코스피200 종목의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종목이다. 이어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 KODEX인버스가 코스피 거래 상위 3위 종목으로 꼽혔다. 서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하게 반영되며 잠깐의 반등이 있었지만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관련 기대가 일시 후퇴했다"며 "시장의 실망이 커지며 연준의 긴축 강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혁 하나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물가 피크 아웃(물가 정점 통과) 기대감으로 나흘간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한국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하루 치 상승분을 반납하는 상황"이라며 "다음 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년새 시총 411조 날아간 코스피…삼전은 시총 123조 '증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45731?sid=101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1380원을 돌파한 7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글로벌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도 1년 새 41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8일 종가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1879조133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날 2290조2487억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411조1149억원(17.95%)이 증발한 것이다. 이 기간 코스피는 3162.99에서 2384.28로 24.62% 떨어졌다.시총 상위 종목별로 보면 대장주 삼성전자는 주가가 7만6000원대에서 5만원대 중반으로 주저앉으면서 시총은 455조4944억원에서 331조9200억원으로 123조5745억원(27.13%) 감소했다.SK하이닉스는 77조원대에서 65조원대로 내려오며 11조3568억원(14.72%) 줄었다. NAVER와 카카오는 각각 29조2885억원(43.54%), 31조3108억원(50.84%)씩 증발해 모두 60조원대에서 30조원대로 급감했다.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시총은 437조8217억원에서 354조2309억원으로 83조5908억원(19.09%) 감소했다. 지수는 1037.22에서 777.81로 25.01% 추락했다.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총은 17조6722억원에서 11조2036억원으로 36.60% 감소했고, 카카오게임즈도 5조5492억원에서 4조459억원으로 27.09% 줄었다.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됐기 때문이다. 최근엔 달러 강세가 전개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3년 5개월 만에 1380원을 돌파하는 등 원화 약세가 지속된 것도 국내 증시에 부담을 줬다.

외국인, 올해 코스피 12조 순매도…삼전·네이버 팔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38189?sid=101

서울 여의도 증권가. ⓒ뉴시스[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12조원어치를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11조96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올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내다 판 주식은 삼성전자로, 지난 7일까지 9조원 넘게 순매도했다.그 다음으로 네이버(1조7370억원), LG에너지솔루션(1조6067억원), 삼성전자우(1조3812억원), 카카오(1조2954억원) 등이다.반면 우리금융지주, SK하이닉스, 현대글로비스, 기아, LG화학 등 순으로 주식을 순매수했다.외국인은 지난 7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일시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 한 달 보름간 6조원 넘는 주식을 사들였으나 이달 들어선 다시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이달 들어 외국인은 지난 8일까지 엿새 연속 주식을 팔면서 1조7000억원 넘게 순매도했으나 개인은 2조28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서울 삼전동 다세대주택서 화재…주민 1명 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99206?sid=102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오늘(13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반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반지하에서 시작된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화재로 70대 남성이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같은 건물에 살던 거주자 2명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또, 불이 난 집 내부와 가재도구 일부가 불에 타 소방당국 추산 78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징주] 바닥 어디까지…삼전·네이버 52주 신저가 추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99502?sid=101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파나마법인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서울경제] 삼성전자(005930)와 네이버가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추락했다.16일 오전 9시 40분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00원(0.36%) 내린 5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5만 5500원까지 주가가 추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같은 시각 네이버는 전날보다 3000원(1.33%) 내린 22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이버 역시 장중 21만 9500원까지 주가가 추락하면서 신저가를 경신했다.

삼전·SK하이닉스 쌍끌이에 반등…8월 CPI 주목 [증시프리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53781?sid=101

<앵커>증시프리즘입니다. 추석연휴로 휴장하는 동안 미국과 유럽증시가 연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증시도 연휴가 지난 첫 날인 오늘 양시장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증권부 홍헌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오늘 삼성전자가 무려 4%나 올랐군요.<기자>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양시장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했는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삼성전자는 오늘 4.50% 올라 5만8,100원에 마감했습니다.삼성전자는 지난 9일 5만5,6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7월4일에도 장중 5만5,700원이었는데 시장에서는 5만5,000원 부근을 바닥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SK하이닉스도 4.87% 올라 9만5천 원에 근접했습니다.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들였습니다.<앵커>오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만전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여력은 있습니까?<기자>삼성전자는 6만 원, SK하이닉스는 9만5천 원 부근을 횡보하고 있는데, 반도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은 사실입니다.전문가들은 D램과 낸드플래시 현물가가 내년 초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내년 1분기는 지나야 재고 수준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다만, D램은 큰 폭의 가격 조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 되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도 연말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내년 상반기부터 서버 DDR5 수요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이번 반도체 하강국면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또한, 투자자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복권되면서 활동이 자유로워졌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그동안 조용했던 굵직한 M&A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앵커>오늘은 K콘텐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게임의 수상소식이 전해졌군요.<기자>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2022 에미상 시상식`에서 오징어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이정재씨가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개된 오징어게임은 전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오늘 국내증시에서는 오징어게임의 제작사인 버킷스튜디오가 오늘 장중 12% 급등했는데요, 오히려 수상소식이 전해진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2%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넷플릭스는 지난 6월 오징어게임의 시즌2 제작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하나의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이 흥행하고 있습니다.공개된 지 사흘 만에 글로벌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수리남 제작사의 지분을 보유한 콘텐트리중앙은 오늘 장중 9% 상승했고, 5% 상승 마감했습니다.참고로 버킷스튜디오는 오징어게임이 공개됐을 당시 두 달간 주가가 약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앵커>이제 국내 제약·바이오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신약 승인소식을 받았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기자>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미국 FDA로부터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신약 롤론티스의 시판허가를 받았습니다.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항암 분야 신약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롤론티스는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백혈구 내 호중구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한 암 환자에게 투약하는 치료제인데,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신약 33호로 허가받았습니다.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첫 글로벌 신약이자 FDA에서 6번째로 허가받은 국산 신약입니다.미국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시장이 약 3조 원 규모인데, 한미약품은 이번 FDA 승인으로 매년 수천억 원대 기술료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롤론티스의 미국 현지 영업과 판매 권리는 스펙트럼이 갖지만, 한미약품은 단계에 따른 상업화 기술료와 로열티 등을 받습니다.<앵커>에이치엘비도 미국 시장진출을 노리고 있죠?<기자>바이오기업 에이치엘비(HLB)는 올해 안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항암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신약승인신청(NDA)을 할 계획입니다.올해는 선양낭성암을 적응증으로 신약승인 신청을 하고, 내년 초에는 간암을 대상으로 한 병용요법도 신청할 예정입니다.통상적으로 FDA 심사 기간이 1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 허가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한편, HLB는 미국을 시작으로 한국과 유럽 등 다른 여러 국가에 리보세라닙 병용요법 승인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앵커>끝으로 내일 일정 살펴볼까요?<기자>내일장은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미국의 8월 CPI는 우리시간 오늘 오후 9시30분에 발표됩니다.월가에서는 8월 CPI가 전년대비 8.0% 오르고, 전달보다는 0.1%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월가의 예상치 정도로 숫자가 나온다면 물가가 피크아웃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속도가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물론 다음주로 예정된 FOMC에서 75bp 인상확률은 90%로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 됐습니다.다만 물가상승률이 둔화된다면 긴축 속도조절에 대한 언급이 새롭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 수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앵커>증시프리즘 홍헌표 기자였습니다.

삼전 '명품' Z플립의 '이것'도 만들었다…모델솔루션, IPO 출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94960?sid=101

[모델솔루션, 코스닥 IPO 기업설명회]  
  
  
  
15일 우병일 모델솔루션 대표이사가 IPO(기업공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취재진"모델솔루션을 제조업체로 봐주지 마십시오. 저희는 디자인 업체입니다."우병일 대표이사의 한마디에서 모델솔루션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우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솔루션은 하드웨어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며 "앞으로 디자인과 혁신을 둘 다 챙기는 업체로 성장하는 게 모델솔루션의 목표"라고 말했다.모델솔루션은 모바일, 자동차, 의료기기 등 다양한 사업군의 제품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프로토타입을 제작한다. 프로토타입(prototype)은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검증·개선 또는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 제작하는 시작품 및 시제품을 뜻한다. 프로토타입은 제품 개발부터 양산단계까지 제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반에 활용되는 핵심 서비스가 된다.모델솔루션은 자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 CMF(Color·Materials·Finishing, 제품 색상·소재·마감) 디자인 △ 초단납기 프로세스 △ 글로벌 톱 고객 네트워크 등을 내세운다. 특히 모델솔루션은 자사만의 CMF 디자인을 통해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Z플립'·'Z폴드' 등을 구현하는 데 기여했다.모델솔루션은 제품 개발 속도 경쟁 속에서 체계적인 프로세싱을 통해 제품 납기 기한을 경쟁사보다 30~70%가량 단축한다고 강조한다. 우 대표는 "해외 경쟁사 대비 최소 2배 정도 빠르다는 점이 모델솔루션만의 경쟁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모델솔루션이 전 세계 톱티어 고객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해 선보인 프리미엄 패키지 '갤럭시Z 폴드3 톰브라운 에디션과 갤럭시Z 플립3 톰브라운 에디션. /사진=삼성전자 제공모델솔루션의 주요한 고객 중 한 곳은 삼성전자다. 명품 브랜드 톰브라운과 협업해 제작해 인기를 끌던 '갤럭시Z 톰브라운 에디션'을 비롯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제품 프로토타입에는 빠지지 않고 모델솔루션이 참여한다.삼성전자 외에도 국내 기업 중 LG, 현대차, 기아, 현대카드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한다. 아울러 테슬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세계적 빅테크를 비롯해 전 세계 400여개의 고객사를 두고 있다.1993년 설립된 모델솔루션은 2005년에 법인전환됐다. 모델솔루션은 이후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아 2018년 한국타이어그룹에 인수되며 품질 프로토콜을 강화했다.현재 글로벌 시장 가운데 모델솔루션이 주력 타깃 시장으로 삼는 곳은 미국 등 북미 지역이다. 모델솔루션은 2016년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시장 거점 확대를 모색 중이다. 상장 이후에는 유럽 진출 계획도 갖고 있다. 유럽 국가 가운데 제조업이 강한 독일을 중심으로 시장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실적 성장세도 견조하다. 모델솔루션은 지난해 매출액 611억원(+9.8%, 이하 전년 대비), 영업익 89억2000만원(+32%)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2% 늘어난 매출액 322억8300만원을 거뒀다.모델솔루션은 이번 상장으로 총 100만 주를 공모한다. 공모 희망가 밴드는 2만4000원~2만7000원이다. 오는 19일~20일에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26일~27일 이틀간 일반투자자 청약을 받는다. 상장예정일은 다음달 7일이다. 대표 상장 주관사는 KB증권이다.우 대표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당사의 경영성과를 고객과 주주에게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며 "동시에 시장에서 냉철히 평가받아 한 단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중시황] 코스피, 1.26% 하락한 2371선…삼전·네이버 신저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37791?sid=10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커지면서 코스피지수는 2370선으로 하락했다. 다음 주 미국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긴축 우려가 확대되면서 주가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16일 오후 1시25분 기준 코스피는 전날 대비 30.22p(-1.26%) 하락한 2371.61를 가리키고 있다.개인은 4358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1813억원, 기관은 2641억원 각각 순매도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1508억원 순매도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현대차(1.52%), 기아(1.25%), 삼성전자우(0.39%) 등은 상승했다. LG화학(-3.34%), SK하이닉스(-2.17%), 삼성SDI(-2.11%), NAVER(-2.0%), LG에너지솔루션(-1.76%), 삼성바이오로직스(-0.87%), 삼성전자(-0.36%) 등은 하락했다.삼성전자와 네이버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최윤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 내에서 강달러 수혜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환율 상승의 수혜로 현대차, 기아와 관련 밸류체인이 강세를 보이고, 원유 수요 둔화 우려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정유주가 약세"라고 말했다. 상승 업종은 통신업(0.37%)이고, 하락 업종은 비금속광물(-3.10%), 화학(-2.75%), 기계(-1.81%), 전기가스업(-1.80%), 철강금속(-1.73%) 등이다.미국 뉴욕 증시는 다시 떨어졌다. 15일(현지시간) 다우 지수는 전장 대비 173.27포인트(0.56%) 내려 3만961.82를 기록했다. 7월 14일 이후 2개월 만에 최저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은 44.66포인트(1.13%) 밀려 3901.35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167.32포인트(1.43%) 하락해 1만1552.36으로 체결됐다. 현재 나스닥100 지수선물은 0.87% 하락세다.코스닥은 전날 대비 12.63p(-1.62%) 하락한 768.75를 가리키고 있다.개인은 1691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376억원, 외국인은 1263억원 각각 순매도했다.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에코프로비엠(-3.38%), 셀트리온헬스케어(-2.47%), 펄어비스(-2.35%), 셀트리온제약(-2.13%), 알테오젠(-1.78%), 카카오게임즈(-1.73%), 에코프로(-1.31%), 천보(-1.19%), 엘앤에프(-0.7%) 등은 하락했다.상승 업종은 출판·매체복제(3.09%), 오락·문화(1.06%), 종이·목재(1.05%)이고, 통신서비스(-4.90%), 화학(-3.70%), 일반전기전자(-2.54%), 통신장비(-2.48%), 건설(-2.39%) 등은 하락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396.40원에 거래 중이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 소비, 노동시장 견조와 국채 금리 급등으로 강 달러 기조 지속되며 장중 1399원을 터치했다.

서울 삼전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불...주민 3명 다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788737?sid=102

어제(13일) 오후 3시 50분쯤 서울 삼전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불이 나 3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이 불로 대피하던 주민 1명이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었고,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또 집 안이 일부 타면서 780만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전화] 02-398-8585[메일] social@ytn.co.kr

벤츠, 서울 송파 삼전초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267572?sid=103

韓 찾은 독일 본사 임원도 참여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7일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삼전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은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가운데 하나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7일 한국을 찾은 베티나 페처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총괄과 함께 서울시 송파구 소재 삼전초등학교 앞에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올해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에는 베티나 페처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총괄, 토마스 클라인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의장, 이은정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시속 30km 준수'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 등 안전 메시지가 적힌 깃발을 흔들며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베티나 페처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커뮤니케이션·마케팅 총괄은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삼전 팔고 SK하닉 사자…엇갈린 외인 수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316298?sid=101

케이프證, 양사 목표주가 하향 조정환율 부담도 여전…“달러 추가 상승 가능성↑”[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4일 환율이 1400원 문턱까지 오른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물론 반도체 대장주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에 개인은 양사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이날 양 종목의 외국인 수급이 엇갈려 주목된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사진=삼성전자)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005930)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24%(1300원) 내린 5만6800원에, SK하이닉스(000660) 주가는 1.90%(1800원) 내린 9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전날 상승폭인 4%대에 비하면 낙폭은 크지 않았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양사 주식을 모두 순매수했다. 삼성전자 주식은 809억9300만원 어치를, SK하이닉스 주식은 99억9800만원 어치 사들였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은 47억9900만원 어치 팔고 SK하이닉스 주식은 256억7600만원 어치 사들였다. SK하이닉스 주식은 2거래일 연속 사들인 셈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베타 성격의 매도 수급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 자국 생산 기조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 이익만이 강조되는 현대 미·중 냉전 대치 상황을 감안하면 여전히 업황에 미치는 영향은 불투명하다.이에 이날 케이프투자증권은 양사 주가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박성순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시안 낸드 팹의 장비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나 단기적인 리스크 대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등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그럼에도 3분기 디램 가격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나 목표주가는 8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매크로 불확실성 해소가 업황 개선에 앞서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하반기 메모리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밸류에이션 하단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SK하이닉스는 지난 7월 초 종가 기준 8만7500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다만 하향 조정된 실적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낮춰 잡았다.실제로 매크로 환경에 속하는 환율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이날 1400원 문턱인 1395.5원까지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향후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13년 만에 처음 1390원을 돌파하면서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추가 상승 가능성도 확대됐다”고 짚었다.

삼전·하이닉스 급등했지만…"반도체株 '찐' 반등은 내년 하반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48799?sid=101

사진=게티이미지뱅크반도체주가 오랜만에 올랐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아직 이달 주가 하락분도 회복하지 못한 데다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도체주 랠리가 시작할 것이라 보고 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4.50%)와 SK하이닉스(4.87%) 등 반도체주는 전 거래일 대비 크게 올랐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것은 7거래일 만이다. 상승율이 4%를 넘은 것은 지난 7월 이후 2개월 만이다. SK하이닉스도 2개월 만에 5%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였다. 추석 연휴 기간 해외증시가 물가고점론 속 상승세를 탄 게 영향을 미쳤다. 국내 반도체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 5일 간 5.2% 올랐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활짝 웃지 못하고 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이달 하락분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일 5만9700원이었던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5만5600원)까지 6.8% 떨어졌다. 이날 5만8100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지난달 말일 가격보다 2.7% 낮다. SK하이닉스도 이날 주가는 9만48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상승했지만 지난달 말일 종가(9만5200원)를 밑돌았다.반도체 산업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약 7246원이었던 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EPS)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은 하반기 내내 하락해 지난 8일 5842원에 머물렀다. SK하이닉스의 12개월 선행 EPS도 상반기 1만7700원 정도였지만 1만1000원 밑으로 내려왔다. 반도체주 본격 랠리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탈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재고수준을 고려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의 다운사이클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 디램(DRAM)과 낸드 순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내년 초 이후 정상화할 전망”이라고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업황을 반영한 EPS도 조금씩 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향후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EPS 컨센서스는 각각 6646원, 1만3995원이다. 지난달 31일(6581원, 1만3872원)보다 늘었다. 김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본격 랠리 시점 이전인 내년 상반기부터 유진테크,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장비주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에 관심을 쏟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연기금, 삼전 팔고 LG엔솔 샀다...순매수 5조 육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896692?sid=101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LG에너지솔루션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주식시장 '큰손'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지난 7개월여간 LG에너지솔루션을 대거 쓸어담았다. 순매수 금액만 누적 5조원에 달했다. 반면, 연기금이 가장 많이 던진 종목은 삼성전자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주체 '연기금'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4조9718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연기금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상장 이후 매수 우위 기조를 유지했다. 지금까지 이 종목 거래가 이뤄진 152거래일 중 매도 우위를 보인 날은 14거래일뿐이다. 같은 기간 연기금은 반도체 종목은 내다팔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3조4719억원, 1조74억원 팔았다. 하반기 반도체 업황 부진 우려로 반도체주 인기는 뚝 떨어진 상태다. 지난 8일 삼성전자는 5만5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52주 신저가 경신은 물론 2020년 9월4일(5만5600원) 이래로 2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에 하락장에도 주가가 날아올랐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인플레감축법(IRA)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외국인도 매수 행렬에 가세해 힘을 받았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지난 8일 장중 49만4000원까지 오르며 상장 초기 이후 처음 50만원 회복을 눈앞에 뒀다. 7월 초 저점과 비교하면 주가가 약 40% 뛰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연기금 #LG엔솔

5만전자에 속타는 개미…연휴 이후 삼전 달릴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38158?sid=101

연휴 직전 ‘52주 신저가’ 추락전문가 “칩4 등 불확실성 여전”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 전경. ⓒ데일리안DB[데일리안 = 황인욱 기자]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원 중반대로 후퇴했다. 개인의 투자심리는 여전한 가운데 연휴 이후 다시 ‘6만전자’로 복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업황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반등 보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거래일 대비 0.71%(400원) 내린 5만5600원에 거래를 마쳤다.삼성전자의 주가는 지난달 26일 이후 6만원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 부진을 거듭하는 사이 ‘52주 신저가’까지 밀렸다.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주가를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 기관은 하반기(7월1일~9월8일)에만 삼성전자 주식을 1조9404억원 순매도 했고, 외국인도 같은 기간 3648억원어치나 팔아치웠다.공매도도 매섭다. 5일 기준 삼성전자의 공매도 잔고는 5440억원에 달한다. 하반기 들어서만 15.8%(4698억→5440억원)나 불어났다.증권업계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원·달러 환율 급증에 따른 자금 이탈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둘러 싼 불확실성을 꼽았다.남대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속되는 원·달러 약세로 매출액 개선 효과가 있겠지만, 반도체 부문의 수요 약세로 출하량과 가격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며 "업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최근 1년 간 삼성전자 주가 추이. ⓒ한국거래소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은 추석 이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칩4’ 동맹 예비회의가 9월 중순 열리기 때문이다.칩4 동맹 예비회의는 미국 주도로 한국과 대만, 일본이 참여하는 구조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다툼이 심화할 수 있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온다.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중국 정보기술(IT)제품 수출 중 한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5.8%”라며 “IT 밸류체인 고려 시 소매 및 도매 무역 공급자, 장비, 화학 분야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증권가의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19개 증권사가 내놓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는 8만342원으로 직전 목표주가(8만1917원) 보다 1.92% 내려갔다. KB·키움증권 등은 7만5000원을 제시하기도 했다.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못하지만 삼성전자를 향한 개인투자자들의 투심은 여전히 뜨겁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 592만2693명에 달한다.현재 소액주주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은 하반기에도 삼성전자를 1조5985억원이나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물량을 소화했다.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 따라 코스피 투심이 들썩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악재에도 중장기적으로 반등의 여지는 있는 만큼 장투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양재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중국 규제로 반도체산업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잠재적 경쟁자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정부의 중국 제재 정책으로 한국 반도체산업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